

테마칼럼

문학가 시대

광주360도

디자인 세상

교육가 마당

호주 오픈 '컬러마케팅'을 보라



이난경

최근 들어 테니스가 다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늘씬하고, 예쁘고, 힘있는' 여자선수들의 등장이 한 몫을 했다. 거기에 의상까지 날로 '화려하고, 세련되고, 짧아지니' 금상첨화다.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손재범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면 이가 시리다며 유난히 병원을 많이 찾는다. 시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뜨겁거나 찬 음식을 같은 온도 자극, 이를 닦을 때 너무 굵은 칫솔을 사용하거나, 단 음식이나 신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는 화학적 자극 등이 있다.

는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불소를 이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일반적인 세제(치약)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세제제의 대부분이 불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불소함유량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칫솔질로 시린 이 예방하자

찬바람이나 냉수, 아이스크림 등을 먹을 때 시린 이유는 노화로 인해 잇몸이 내려앉아 이의 뿌리가 노출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잇몸병에 의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칫솔질을 좌우로 강하게 한 나머지 치아의 옆구리가 심하게 패이거나 마모돼 일어나기도 한다.

고 패어 시리고 심·미적으로 보기 좋지 않을 때는 치아색이 나는 재료로 막아 주어 시린 증상과 심·미적 요인을 함께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치료를 위해서는 윗니와 아랫니가 조화롭게 맞물릴 수 있도록 조절하고, 치석제거를 통해 치아표면을 깨끗하고 매끄럽게 만든 다음 약제를 바르는 것이 순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시린 부위에 칫솔질을 하기 힘들고 또 일부러 회피를 하기 때문에 치면세균막(플렉)이 많이 쌓여 잇몸 건강은 더욱 악화되기 쉽다. 결과적으로 잇몸 염증과 풍치가 급속하게 진행돼 잇몸은 더 주저앉고 시린 증상에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

시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제거다. 잘못된 칫솔질 방법을 바꾸는 것은 가장 손쉬운 예방법 중 하나다. 잘못된 칫솔질로 계속 잇몸 닦으면 치아 마모는 빨라지고, 치아 사이 사이에 남은 음식물도 인해 잇몸 염증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잇몸은 점점 아래로만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음식점, 고급스런 식탁 용지 사용 자제해야

남도 음식은 맛있고 푸짐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어느 식당엘 가도 큰 상에 갖은 반찬이 차려진다. 고급스런 식탁에서는 식탁 위에 깔끔하게 인쇄된 종이를 깔아놓는다. 손님은 '깔끔하고 내가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는 필포가 부족해 필포용 목재를 많은 돈을 들여 수입한다. 크고 고급스러운 음식점일수록 경쟁적으로 사치스러운 식탁 용지와 주문 계산서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허례허식이라고 생각된다. 자원 절약은 크고 큰 곳에 있지 않다. 식탁용 종이 사용을 자제하자. ▲안호빈·광주시 남구 원산동

기고

김형천



올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14조4천 377억원으로 작년 대비 20.9%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다가 국민연금에 비롯한 3개 기금 8조4천886억을 합하면 복지부문에 쓸 수 있는 총지출 규모는 22조9천23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2%가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시장 원리의 도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는 곧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에도 나타나고 있다. 민영보험 활성화가 그 대표적 예이다. 민영보험이 활성화되면 의료기관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민영 의료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게 허용된다.

복지에도 시장경제 원리 도입돼야

사회복지대상과 그 영역의 확대는 복지예산 및 정책과도 직결돼 국가의 공적 지원만으로는 수많은 복지욕구의 충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공동모금회와 같은 더 많은 민간재원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됐고, 동시에 민간 사회복지의 인프라를 확충시켜 국가와 역할을 분담하는 복지서비스의 민간 참여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어디든 국가는 이를 잘 감시하고 조절할 동시에 지금보다 적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크게는 국민, 작게는 지역 주민 모두가 사회복지 마인드를 갖게 하여 정부가 방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후진국형 전염병 '결핵' 국가 차원 대처를

임동살한데도 노숙자는 줄어들지 않고 후진국형 전염병인 결핵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질병이다. 지금도 세계에서 연간 200만 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결핵환자 사망률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

어났다. 지난해 다이어트와 그로 인한 영양 부족, 청소년들의 입시공부보 인한 체력저하가 원인이다. 결핵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국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결핵 실태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환자를 적절히 관리하려는 보건 당국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법정 전염병인 만큼 활동성 결핵환자에 대한 전방위적 역학 조사 등 예방과 퇴치를 위한 전방위 체계 구축도 급하다. 정부가 결핵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이현미·광주시 남구 백은 2동

시설

하계 U대회 유치에 지역사회 역량 쏟아

광주시가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하계U대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갖고 유치전에 돌입했다. 2년마다 열리는 하계 U대회는 단순한 대학생 체육행사가 아니다.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교육·체육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다. 170여개국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선수단의 규모는 아시안게임에 버금간다.

만큼 유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투표권이 있는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 27명 가운데 13명이 유렵에 몰려 있는 점도 부담이다. 하지만,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서 보여줬던 역량만 결합하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올림픽과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등 세계 3대 체육행사 유치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도 장점이다. 2013 U대회 광주시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광주시, 유치위원회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총력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경제계와 체육계 등 민간차원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 채널과 함께 대기업의 해외지사망 등을 통한 전방위적인 유치전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광주시는 하계 U대회 유치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역민의 유치를 위한 의지와 열망은 두말할 나위 없다.

대학 등록금 대폭 인상 연례행사 안된다

신학기를 앞두고 등록금을 둘러싼 대학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 100여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사위원회 앞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등록금 문제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대학가는 거의 예외없이 해마다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학교측은 재정여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생들은 인상이 너무 높다고 맞섰다.

대 수업료는 4.8%가 인상될 전망이다. 대학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은 부경대가 30%로 가장 높고 부산대 25%, 강교육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사위원회 앞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등록금 문제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대학가는 거의 예외없이 해마다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학교측은 재정여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생들은 인상이 너무 높다고 맞섰다. 지난해 전국 대학 납입금은 2006년에 비해 국·공립대 8.6%, 사립대 7.0%나 인상됐다. 전체 소비재물가 상승률 2.5%의 2.8~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부 사립대에선 연간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지 오래됐다. 재단의 전입금은 미미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등록금만 연례행사처럼 큰 폭으로 올려온 결과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5.8%, 수업료는 6.9%, 국립 대학 등록금 대폭 인상 연례행사 안된다. 대학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은 부경대가 30%로 가장 높고 부산대 25%, 강교육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사위원회 앞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등록금 문제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대학가는 거의 예외없이 해마다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학교측은 재정여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생들은 인상이 너무 높다고 맞섰다.

無等鼓

최근 끝난 대만 총선에서 집권당인 민진당이 야당 국민당에 참패했다. 국민당은 입법원 의석 113석 가운데 72%인 81석을 차지했다. 총선에서 국민당이 압승함에 따라 오창선 22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선거에서도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마잉주 후보가 총통선거에서 승리하면 국민당이 8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

장면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아 있다. 천수이볜은 지난 2004년 총통 선거에 재출마해 국민당 쟁전(連戰)과 박빙의 경합을 벌이다 간신히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재선 후 그의 행보는 결코 명에스럼이 못했던 것이었다. 대만 민주화의 상징으로 미화됐던 부인 우수전은 공금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 부패비리의 장본인으로 전락했다. 천수이볜의 사위 또한 내부자 주식거래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아 검찰과 법원을 들락여야 했다. 이 때문에 천수이볜의 집권 2기에는 그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천수이볜은 대만 독립을 고집하는 등 독선으로 일관했고 경제는 침체됐다. 천수이볜의 거둔 실정 끝에 치러진 대만 총선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번 대만 총선은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는 항상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었다. /박지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대만의 '민심'



특히 8년 전 천수이볜이 당선될 당시 눈길을 끈 것은 황체어에 앉아 그의 옆을 지켰던 부인 우수전(吳淑珍) 여사의 모습이었다. 우 여사는 천수이볜이 야당 시절에 당한 정치테러로 하반신을 쓸 수 없었고 이는 대만인들의 동정심을 이끌어 내 50년만의 정권교체를 불을 당기는 촉매제가 됐다. 8년 전 천수이볜이 당선 후 부인 우 여사를 두 팔로 안고 의사당 계단을 오르던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